| 불자 세상보기 |

사랑도 상식이다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6학년 男초등생과 성관계한
32세 여교사의 일탈 충격적
사랑했다는 변명, 이해 안돼

'사랑' 이란 말 남발해도 되나
취향의 이성 유혹한 도구일 뿐
상식 안의 사랑만이 아름답다

불사음계를 수지한 불자라면
사랑의 오남용 경계하며 살자

그동안 학교현장의 교육질서가 무너졌다는, 탄식의 소리가 많았지만 얼마 전 보도된 32세 여교사와 12세 초등학생 간의 일탈행위는 자못 충격적이었다. 사제지간에 일어난 유사한 사건이 없지는 않았지만 주로 남자교사와 중·고등학교 여학생 사이에 벌어진 성적 비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의제강간사건이라고 규정된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20살 연상의 같은 학교 여교사이고 피해자가 불과 12세의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일반국민들이 느낀 당혹감은 상당했다. 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추행을 하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강간'이나 '유사강간' 혹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성의 장벽이 무너진 현대사회라고 해도 어머니뻘인 여교사와 초등학생 간의 성적 사랑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애써 무시해버려도 좋을 지극히 예외적인 일종의 터부(taboo)사건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여교사가 학생에게 보냈다는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만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감히 '사랑'이란 말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해도 좋은가라는 인간적 물음을 던지고 싶은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교내 체험활동에서 처음 만났다고 한다. 저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여교사는 이 6학년 남학생에게 호감을 느꼈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러나 상대가 선생님이라는 부담감을 떨칠 수 없었던 남학생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진 여교사가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고 만두를 사줄 테니 나오라고 하는 등 노골적인 추파를 던졌다. 마침내 두 사람은 학교 교실과 자동차 안에서 여교사의 주도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는 관계로 발전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아무래도 행동거지가 부자연스럽게 보였을 아들의 휴대폰을 검색해 본 부모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학교에 신고하면서 여교사의 잘못된 행동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의 여교사는 두 자녀와 함께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며 학부모와 동료교사들로부터도 평판이 꽤 좋았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무도 그가 제자인 남학생을 상대로 성적 비행을 저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여교사는 자기보다 20살이나 적은 초등학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버젓이 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벗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다. 이는 글자 그대로 의제강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성적 일탈행위 그 자체임에 틀림없다. 여교사는 형법 제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조항에 적시된 범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여교사와 그 가족의 신상정보가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인권침해 등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 번 더 같은 질문을 던져 보자. 20살이나 나이가 많은 성인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사랑'이란 말을 그렇게 남발해도 좋은가를. 결과적으로 보면 그 여교사는 사랑이란 단어를 자기취향의 어린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달콤한 수단으로 오남용했을 뿐이다.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말은 곧 섹스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사랑이란 말을 그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감히 경고하고 싶은 것이다. 사랑도 상식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법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32세 여교사와 12세 초등학생 간의 비상식적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의제강간이란 범법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따가운 비판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이란 말의 오남용을 경계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불사음계를 수지한 모든 불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기자

정부는 왜 창조과학자를 좋아할까

박성진 중소벤처부기업장관 후보자의 인선으로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그가 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박 후보자는 2007년 창조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언론, 법률, 기업,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며 "오늘날 자연과학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근대 자연과학의 성과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과학회는 1981년 1월 창립했으며, 현재 소망교회를 비롯해 전국 1백여개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기독교 단체다. 국내외 24개 지부에서 이공계 석·박사 회원을 중심으로 약 1천 8백 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창조과학회는 진화론을 부정하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연구·세미나·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공교육 교과서에 창조론을 진화론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실 정부 인사 중 창조과학회 활동 전력으로 인해 논란된 인물은 박 후보자가 처음은 아니다. 현 정부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자신의 저서 등으로 창조과학론자로 인식돼 청문회에서 "진화론을 믿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앞선 정권에서도 창조과학자는 활동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위원으로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한 장순흥 당시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교수가 임명되며 문제가 됐다.

현 정부든, 이전 정부든 창조과학자들의 등용을 '종교적 문제'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이들의 중용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 사례가 201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교과서 시조새 삭제 논란'이다.

당시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는 교육과학부에 청원을 넣었고 '시조새'와 '말의 진화' 등 국내 과학교과서 진화론 내용 중 일부가 삭제 또는 수정되기 직전까지 갔다. 이들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교과서에서 균형있게 가르치자'고 주장하는 단체로 창조과학회와 연관성이 깊다.

과학계는 창조과학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과학적이며 반지성적이기 때문이다. 정재승 KAIST 교수는 지난 8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 선택이 아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 올린 과학적 성취를 부정하는 '반과학적인 태도를 지녔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과학과 종교와의 갈등은 유사 이래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과학이 종교를 완전히 이겼다고 볼 수 없지만, 다윈의 진화론이나 생명의 기원은 무기물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을 증명한 밀러-유리 실험은 적어도 인간의 근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

박 후보자와 정부의 해명대로 창조과학은 신앙에 문제라고 치자.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퇴출시키고자 하는 '반지성적' 신앙을 가진 '비과학적' 과학자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번 정권은 이전 정권처럼 '창조'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

社說

조계종 내부 갈등 대화로 풀자

조계종 안팎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격렬한 싸움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 서로를 적폐로 외치고 있다. 여기에 단식 등 극한 투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도법 스님을 중심으로 한 백년대계본부가 갈등 중재를 위한 대화위원회를 6일 출범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연대나 총무원이 명분의 불로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쪽이 서로의 명분을 내려놓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사회 갈등에는 중재역할을 자임했지만 정작 종단 내부 갈등이 격화될 때 이를 중재하는 역할이 없다시피 했다. 제3자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처한 이들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화위원회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화위원회 구성 촉구를 계기로 불교계 내 갈등해소 방안을 불자들은 모색해야 한다. 현재 불교는 위기다. 불자인구 감소 300만 시대, 불교 각계는 줄어드는 교세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고령화되는 기성불자와 줄어드는 청년불자로 인해 위기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불자들은 포교와 전법, 그리고 신심 증장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현재 갈등을 빚는 이들의 명분은 모두 불교를 위함이다. 모두 조계종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서로를 극단으로 배제하고 밀어내고 있다.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지금, 불교 각계가 각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화합해 불교를 혁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불교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종단 안팎이 혼란스러운 지금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불교발전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가는 또 다른 기회다.

한중일, 실효성 있는 '황금유대' 필요

한중일 3국 불교 교류를 상징하는 행사인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20회차를 맞았다.

1995년 5월 21~24일 중국 북경 광제사 일원에서 역사적인 1회 대회가 '우호·협력·발전'을 주제로 개최된 이래 20여년 동안 총 23번의 대회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순회하며 열렸다. 그동안의 대회에는 한국에서만 3442명, 중국 3597명, 일본 2413명의 스님이 참여했다. 약 9400여명의 스님이 3국 불교 교류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오랜 역사를 같이한 3국의 불교가 상호 동질감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또 '3국 교류위원회'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적 교류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성과다. 무엇보다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 나라가 자비와 평화라는 불교적 사명을 다하는데 적극 나서는 대회로 정착돼가고 있다.

2000년 10월 서울 대회부터 시작된 '세계평화기원법회'와 국제 학술 심포지움도 완전히 정례화됐다. 또한 20번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중일 3국의 불교도가 동북아 평화와 생태·환경, 불법홍포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다짐하는 제언들이 발표됐다.

문제는 학술대회나 선언문을 통해 제안되는 방안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제언들이 상징적인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중일 불교의 '황금유대'가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그간 대회에서 쏟아진 제언들에 대한 피드백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한중일 3국 불교의 실천적 노력을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